

광주 광산구 승진인사 놓고 일부 잡음

광주 광산구 간부급 승진 인사를 놓고 일부 고경력자들이 인사에서 밀려나는 등 구청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22일 광산구와 구 공직자들에 따르면 구는 지난 19일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 의결된 46명 중 4급 서기관 승진자는 1명, 5급 사무관 승진자는 11명이다.

김삼호 신임 광산구청장은 인사 예고문에서 '근무 평정과 경력·나이·구정 기여도를 두루 반영하겠다'고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무 부서·구정 기여도 등 고려하지 않아”

한 공직자 명퇴신청...“균형잡힌 인사로 평가”

에서 소외받았던 공직자들도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일부 고경력자들과 민선 5·6기 때 연이어 낙방했던 공직자들이 밀려나고, 30%가량이 비교적 짧은 경력에도 임용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됐다. 광산구는 또 '서기관과 6·7·8급 인사에는 근무 평정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근무 평정 순위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선 '기대한 만큼 파격적 인사는 아니었다' '격무 부서나 구정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아쉬움도 나

오고 있다. '인수위원회 활동 때 고생했던 특정인을 배려해준 것 아니냐'는 각종 구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했다. 경력·나이·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잡힌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부구청장을 포함, 서기관·사무관 등이 대거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올해 말 또는 이듬해 초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서 총기 난동 1명 사망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21일(현지시간) 총기난동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일시 인질로 붙잡혔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총으로 무장한 용의 남성이 이날 자신의 할머니에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다른 여성을 부상시킨 뒤 로스앤젤레스 번화가에 있는 슈퍼마켓에 난입, 40~50명을 인질로 잡고 대치극을 벌였다.

범인은 할머니에 여러 차례 발포하한 다음 여성을 승용차에 태우고 도주했으며 추격하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시내 실버레이크 지구에서 몰고가던 승용차가 충돌 사고 후 범취사자 슈퍼마켓에 난입해 손님과 직원들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했다.

가자 지구서 또 유혈 충돌 발생 5명 사망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가자지구의 접경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 이스라엘 군인 한 명과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했다.

타인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접경에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팔레스타인 저격수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 군인은 중상을 입었고 결국 숨을 거뒀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가자지구 쪽에서 자국군을 향해 총격이 발생했다며 보복 차원에서 항공기와 탱크를 이용해 가자지구 내 목표물 여러 개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조직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독일 만원 버스서 흉기 난동에 9명 부상

20일(현지시간) 독일 북부 튀빙겐의 한 만원 버스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9명이 다쳤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튀빙겐에서 트라베렌데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승객들을 공격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들이 여러 명 타고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는 튀빙겐 사는 34세의 독일 시민이라고만 알려졌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용의자가 정지적으로 급진화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테러 배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매체들은 당초 다친 사람이 14명이라고 보도했지만 경찰은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이 중태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피해 인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튀빙겐 위치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한스 요하임 그로트 내무장관은 9명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6명이 흉기에 부상을 입었다. 2명은 넘어지면서 다쳤고 버스기사는 주먹으로 가격당했다.

버스 기사가 즉시 차량을 세우고 승객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대처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알려졌다.

독일에서는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배후를 자처한 크고작은 테러가 잇달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수도 베를린 시내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트럭 돌진 테러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했다.

IS는 독일이 미군 주도의 시리아·이라크 IS 격퇴 작전에 참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일을 표적으로 한 테러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카약으로 폭염 탈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21일 경남 함양군 휴천면 연천강에서 카약 동호인들이 급류를 타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함평군 해상서 양식 돌돔 수만마리 폐사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남 바다 양식장의 돌돔 수만마리가 폐사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함평군 주포항에서 10분거리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돌돔 8만여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돌돔은 바다 위에 떠 있었으며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또 이 양식장에서는 5일 전부터 돌돔 폐사가 시작됐으며 이날은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돌돔 폐사가 무더위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해 폐사를 한 것인지, 질병 때문인지 규명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으며 이날 기온은 함평 37.3도를 최고로 곡성 36.5도, 나주 36.2도, 순천 35.9도, 담양 35.8도, 화순 35.7도, 북포 35.6도, 광주 35.2도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기록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9월까지 전국 중고교 시험지 보안 전수점검

시험관리 지침 강화·부정행위처 처벌규정 명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9월까지 지 관할 중고교 시험지 보안과 준비 상황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시험출제부터 시행, 감독, 부정행위 처리 절차, 성적처리 방법 등 시험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업성적관리시험지침'을 강화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에서 평가 관련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운영중인 평가관리실을 확대 설치하고 인쇄실과 시험지 보관시설 운영상황을 실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늘리는 방안도 교육청별 여건을 고려

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중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 시험지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은 2학기 중간고사 실시전인 9월까지 관할 중고교 시험지 보안과 준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으로 8월 중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각 교육청은 시험지 유출 제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제안한 단

계별(출제-인쇄-보관-시험) '학업성적관리시험지침(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 과정별로 촘촘하게 보완해 각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 관계자들은 부정행위자·보안사고 관련자 조치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 시설 감시 CCTV설치 등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래는요... 자태치로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임신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미지 여의 임신 양산시.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 서울특별시 1577-1000